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개최...시장 반응은 '긍정적'

IT/전자

입력 2024.07.11 09:48

수정 2024.07.11 09:51

기자명김용석 기자 news@ezyeconomy.com

[이지경제=김용석 기자] 삼성전자는 10일 프랑스 파리 카루젤 뒤 루브르 쇼핑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하고 갤럭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플립6, 폴드6)으로 대표되는 메인 제품과 함께 총 7개의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된 행사였기에 올림픽 스폰서로서 제품을 전면에 홍보하는 데 최적의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성능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면 기존 외형을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폼팩터는 유지하면서 하드웨어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갤럭시 버즈3' 시리즈와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경우 기술적인 한계로 외형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자연스럽게 초반 판매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사전 예약만 열흘 만에 1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언팩 행사 전부터 높은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 역시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여기에 언팩의 메인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주변기기에 대한 관심도 크기 때문에 매출 전환 역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 폴더블폰 신작부터 주변기기까지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폴드6와 플립6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인 외형은 그대로 가되 내부적인

성과와 사용자 경험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점이다. 폴드6의 경우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와 힌지, 발열을 돕는 베이퍼 챔버 등을 모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 플립6는 카메라 업그레이드와 램 용량 증설, 배터리 용량까지 키우는 데 성공하면서 '디자인만 보고 사는 폰'이라는 인식을 깨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이 외형이 바뀐 제품은 역시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3 시리즈와 갤럭시 워치 울트라다. 버즈3의 경우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같이 공개됐는데, 착용감 향상과 장시간 사용, 고음질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시리즈의 외형에서 과감히 벗어났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경우에도 기존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원형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쿠션 디자인'을 더해 액티비티 활동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가 센서와 배터리 탑재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링'은 스마트 워치보다 세밀한 건강 체크를 목표로 설계가 된 만큼 별도의 디스플레이 없어 심플한 반지 형태로 공개됐다. 한 번 충전 시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취침 중에도 기존 스마트워치 이상의 세부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미 시장에 출시된 스마트 링 제품군과 달리 '삼성 헬스'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를 대거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삼성전자

◆ 뜨거운 커뮤니티 분위기...화제성 입증

언팩 행사 이후 다수의 IT 커뮤니티에서는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언팩 행사 및 사전 체험 행사를 통해 공개된 하드웨어 성능과 스펙이 실제 판매 제품과 동일하다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산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플립6의 경우 이전 시리즈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짧은 배터리 타임과 낮은 성능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로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을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외형이 바뀐 제품들에 대해서도 실제 제품의 외형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갤럭시 버즈3 울트라와 비슷한 컬러 제품이 유출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 다른 2개의 컬러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디자인이 괜찮다는 의견 역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실물이 공개됐음에도 버즈3 시리즈의 경우에는 실제로 착용해보기 전까지는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전체적으로 언팩 행사 이전에 대부분 제품 디자인 등이 SNS를 통해 유출됐던 상황이기에 완전히 새로운 충격까진 아니지만 실제 제품이 유출된 이미지보다 나왔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제품의 성능과 갤럭시 AI를 이용한 기기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유출된 정보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많아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제품 퀄리티가 높다는 평가다.

◆ 업계의 시장 전망도 긍정적

국내 IT업계 관계자들은 커뮤니티 반응이 뜨겁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통해 화제성을 가져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많은 업체가 신제품 공개 행사를 하지만 제대로 된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이전부터 유출 등으로 이슈를 만들었고, 언팩 행사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소비자 스스로 구매 의사를 밝히는 현상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언팩에서 공개한 성능 중심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및 시장 피드백을 반영해 직접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제품의 디자인 같은 외형적인 부분은 라이벌인 애플의 제품군과 절대적으로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삼성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성능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한 경험 개선은 기존 사용자와 새롭게 제품을 구매할 신규 구매 고객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접근이다.

이에 대해 한 IT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외형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갤럭시 AI의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향상된 하드웨어 성능을 바탕으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사전 공개 행사와 이번 언팩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주변기기와의 연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폰 판매와 함께 주변기기 구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워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파리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갤럭시 링

김용석 기자 news@ezyeconomy.com

출처 : 이지경제(<https://www.ezyeconomy.com>)